리더에게 請하다

돈관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국발전·불교중흥’, 미래세대 전법에 있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달성하며 4년 연속 톱10을 달성했고, 단과대학마다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대학생 전법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 중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있다. 돈관 스님의 강점은 ‘소통’에 있다. 이사장 취임 후 돈관 스님은 취임식 대신 전국의 캠퍼스, 병원 등 학교 기관과 산하 부속 학교를 다니며 구성원들과 소통했다. 그곳에서도 가장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시설 관리, 환경미화원 등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기계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30년을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사장스님이 지하까지 내려와 직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돈관 스님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루고자 한 것은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다.

4월 4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이사장 집무실에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는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비롯해 불교동아리, 전법특임교수, 로터스관 조성 불사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로드맵들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돈관 스님은 “미래세대 전법이 성공해야 ‘동국발전·불교중흥’이 완성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Q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불교동아리 창립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A.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학부생이 1만4000명, 대학원생 4000명이고, WISE캠퍼스가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2000명입니다. 총 2만 8000명이 동국대의 재학생인데 2024년 1월 학내 불교동아리 인원을 파악해 보니 200명 정도 되더군요.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집토끼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아홉 스님들과 상월선원 무문관에 들어갔고, 삼사순례·천리순례·인도 43일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은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캠퍼스에 15개, WISE캠퍼스 6개, 듀이카에 1개, LA캠퍼스에 1개, 총 23개의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열린전공학부에도 ‘무념무상’이라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됐습니다. 학부생 210명 중 90명이 동아리 회원입니다. 학생들이 여법하게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을 보고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월 10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동국대 불교동아리는 25개로 늘어났다. 동국대에 따르면 총 회원 수는 4000여 명에 이른다.)

Q 지난해 열린 ‘영캠프’를 통해서는 2500여 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가 됐다. 영캠프 개최 목적은 무엇인가.

A. 자승 대종사는 “허리가 튼튼해야 조직이 바로 선다”면서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던졌는데, 저와는 2000명을 모아 전국 영캠프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활을 걸고 지난해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첫 영캠프를 열고 2500여 명이 수계를 받았습니다. WISE캠퍼스도 영향을 받아 학생 1800명이 영캠프를 통해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영캠프는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 24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캠퍼스가 영캠프를 개최할 예정이고, 11월 18일에는 WISE캠퍼스가 교내 문무관에서 영캠프를 엽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체계적인 불교 동아리 활동과 신행 생활을 통해 수계로 이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Q 올해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 신설 이유는 무엇인가.

A. 신설된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단의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지원하고 전법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교내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스님들은 자신의 연구와 학업활동 이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강의 등 전법영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신분 제약 상 어려움이 있었죠. 전법특임교수라는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캠퍼스 전법을 추진하자는 것이 신설된 제도의 골자입니다. 전법특임교수를 통해 불교동아리의 안정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국대는 지난 2월 27일 ‘2025학년도 산하기관 신규 교원·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올해 신설된 전법특임교수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법특임교수는 1년 단위로 임용되며, 연간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Q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성과도 눈부시다. 2021년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오는 5월 중 100회 수여식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성과가 궁금하다.

A.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입니다. 1개 사찰마다 연간 10명의 지역 인재(동국대 재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불교청년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포교와 장학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로 시작해 4월 3일 군위 법주사까지 총 95번째 장학증서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약 3000여 명이 장학 혜택을 받았습니다. 5월 중순에는 100회 전달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공감한 사찰들의 장학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첫 장학금 전달 사찰인 원법사와 지리산 화엄사는 네 차례에 걸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찰에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주기적으로 감사 인사를 위한 방문을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는 부처님 오신날 지원 사찰 방문, 템플스테이 참여 등 신행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가.

A. 모든 학생들의 편지가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한 명을 꼽자면 지난 3월 6일 진주 백운사의 장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희귀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동국대에 입학했는데, 백운사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여전히 일생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백운사에서 주신 장학금에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좌우명을 ‘돈오점수’로 삼고, 사찰과의 따뜻한 인연을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였는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Q 오는 9월 중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시작된다. 로터스관 건립 불사의 의미는?

A. 로터스관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본격적인 불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설계가 나온지 6년 만이죠. 총 연면적 2만6502㎡, 건축면적 2843.46㎡에 본관 지하 3층~지상 3층(2411평), 별관 지하 6층~지상 2층(5619평)으로 지어지는 ‘로터스관’에는 박물관·선센터·사무공간·교육연구시설·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무엇보다 박물관이 새롭게 조성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동국대 박물관에는 국보 2점, 보물 8점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화유산들이 5800여 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존·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2028년 로터스관이 들어서면 불교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성공적인 불사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로터스관은 단순한 건물 건립 사업이 아닙니다.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입니다. 당장 이사장인 저부터 전국을 다니며 건립기금 모연을 할 것입니다. 동국인들과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Q 대형 산불과 미얀마 대지진 등 안타까운 재해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지역 학생과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이 궁금하다.

A. 잇달은 자연 재해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8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를 비롯해 의료원, 부속 학교 등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동국대에는 미얀마 유학생이 35명 정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로 시작

5월 중 100회 증서 전달식 예정

지역사찰–학생 연결 신개념 장학

‘불교동아리 활성화’

2024년 단과대 불교동아리 창립

올해도 2개 추가… 총 25개 활동

전법특임교수 신설, 안정화 기틀

‘로터스관 조성 불사’

오는 9월 로터스관 착공식 예정

박물관 등 연구 · 교육시설 확충

“불교중흥 불사에 全불자 동참을”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 ·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처음으로 임용된 전법특임교수들의 기념 촬영 모습.



4월 3일 열린 동국대 제9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단체 기념사진.